

“검은 것은 아름답다”

흑과 백의 인종 갈등 다룬 영화들

인류사에서 흑인만큼 멸시와 차별을 받은 인종은 드물다. 그들이 차별을 받은 이유는 단 한가지 문제에서 기인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수행했다. 억지로 고향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무보수 노동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흑백문제 종종 등장

미국영화의 심각한 주제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흑백문제’이다. 억압과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심리를 파헤친 대표적인 영화가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 Bird)이다.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1963)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는 이 영화는 미국의 여성작가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원작으로 만들었다.

하퍼 리는 무명이었던 1960년 이 소설 한편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유명작가가 되었고 이 책은 국내에서도 몇군데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외국소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영화에서 에티커스 변호사역을 맡아 열연한 그레고리 펙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화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은 미국 남부의 알라바마주 메이콕이라는 소읍에서 일어난 사건을 스카우트라는 한 어린 소녀의 눈을 통해 고발한 영화이다. 한 흑인남성이 백인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스카우트의 아버지 에티커스가 변호를 맡게 되고 스카우트는 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며 인종차별이라는 맹목적 편견을 목격하게 된다.

이 영화는 고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앵무새를 총으로 사냥하고 싶어하는 스카우트와 켄에게 아버지 에티커스는 ‘힘없는 앵무새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앵무새 하나 못죽이는 겁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여러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가 앵무새를 죽이는 사람들보다 더욱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앵무새’는 재판을 받는 흑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모든 힘없는 소외계층을

미국영화에서 ‘흑백문제’는 종종 심각한 주제로 등장한다.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 등을 비롯한 영화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고발한다. 최근 흑백영화의 흐름은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 차세대 감독들은 ‘흑인의 정체성 찾기’를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



영화 <말콤 X>의 한 장면.

상징한다. 수많은 백인들의 눈총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앵무새, 즉 흑인의 변호를 맡은 에티커스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 영화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그 어떤 주위나 주장보다 더욱 힘있게 인간의 편견을 지적해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흑인의 정체성 강조

국내에도 여러 출판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쓴 전기소설 《말콤 X》를 흑인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가 영화로 만든 <말콤X>는 흑인의 비극적인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인권운동가 말콤X의 생애를 따라가며 흑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불량배였던 말콤이 감옥에서 학문과 저항 정신에 눈떠가는 과정과 이슬람교로의 개종, 흑인 내부의 계파갈등, 죽음 등을 건조한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을 <뚝바로 살아라> <정글피버> 등의 뛰어난 영화를 연출한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가 특유의 사변적인 영화언어로 만들어냈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검은 것은 아름답다”고 외치는 말콤의 사자후가 가슴에 남는 영화이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엘리스 위커의 원작소설을 할리우드 최고의 흥행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화한 <킬러퍼플>은 흑과 백의 갈등과 투쟁을 영화화한 인종영화라기보다는 사회의 주요구성원인 흑인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춘 ‘흑인영화’이다.

셀리와 네티라는 흑인자매의 인생역정을 미학적인 화면에 담아내고 있는 이 영화는 우피 골드버그라는 못생긴 흑인 영화배우를 스타덤에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흑인 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흑인이 차별의 피폭자가 아닌 일반적인 인생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묘사되는 영화는 코미디물 외에는 지금도 드물다.

흑백차별이 전근대적으로 자행되는 대표적인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원래 줄루족의 땅이었던 곳에 백인들이 들어와 자행한 비인간적인 행위 등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흑인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세계 감독의 주요 화두

영화 <파워 오브 윈>에서 이러한 남아공의 흑백차별 문제가 미약하게 제기되기는 하지만 역시 남아공 흑백갈등 영화의 대표작은 <자유의 절규>이다. 언론인 도널드 우즈가 죽음을 각오하고 남아공을 탈출한 뒤 집필한 실화 소설 <고통에의 요구와 비코>를 토대로 리처드 아텐보로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남아공 흑인운동의 아버지인 스티븐

비코의 삶을 다루고 있다.

어린이 7백여명을 포함 4천명의 흑인들이 학살된 스웨토 흑인봉기의 주동자가 되면서 인권운동의 전면에 나선 비코는 남아공 흑인운동이 그저 불만과 욕구에 그치지 않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투쟁으로 승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던 중 고문에 의해 살해된다. 도널드 우즈는 결국 죽음의 원인이 구타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남아공을 탈출한다.

흑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중 영화사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지닌 채 우리에게 기억되는 영화는 프랑스 감독 마르셀 까뮈의 <흑인 올페>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에서 착안한 이 영화의 주제는 원래 신화시대 이후 수많은 연극과 오페라, 영화 등의 소재로 관심을 끌어들였다. 물론 주인공들은 백인이었다. 그러나 1959년 한 도발적인 영화감독에 의해 오르페우스는 리오 카니발의 정열적인 분위기와 격동적인 삼바리듬 속에 흑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흑백영화의 흐름은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 스파이크리, 존 싱글턴 등의 차세대 감독들에 의해 ‘흑인의 정체성찾기’가 영화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허연 기자